

'91년도 국내 화재 통계

본 통계는 내무부에서 최근 집계 발표한 "91년도 화재 통계 연보"중에서 국내 화재 개요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1. 화재발생개요

가. 화재발생 현황

1991년 화재발생 현황은 총 16,487건이 발생하여 1,781명(사망 525명, 부상 1,256명)의 인명피해와 442억 1천 8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전년대비 발생건수 2,238건(16%)이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는 233명(15%), 재산피해는 100억 8천 5백만원(30%)이 증가하여 화재건수에 비하여 피해액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91년도 화재발생 현황

發生件數				人命被害			財産被害(萬圓)		
計	失火	放火	其他	計	死亡	負傷	計	不動産	動産
16,487	13,728	1,314	1,445	1,781	525	1,256	4,421,785	868,535	3,553,230

화재발생 유형은 실화가 83.2%인 13,728건이고, 방화가 8%인 1,314건, 원인미상 및 기타 화재가 8.8%인 1,445건으로 대부분 화재는 부주의나 고의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

실화의 비율은 전년대비 18.1%가, 방화는 0.3%가 증가하였으며 원인미상 및 기타 화재는 9.9%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의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화재발생은 연평균 13.3%씩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는 6%, 재산피해는 46%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재산피해가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87~'91)

區分	發生件數	人命被害			財産被害(百萬元)
		計	死亡	負傷	
'87	10,144	1,474	321	1,153	14,780
'88	12,507	1,550	414	1,136	34,783
'89	12,704	1,519	447	1,072	22,357
'90	14,249	1,548	348	1,200	34,132
'91	16,487	1,781	525	1,256	44,218
年平均	13,218	1,574	411	1,163	30,054
增加率(%)	(13.3)	(6)	(17)	(2.4)	(46)

2. 발화장소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된 장소는 주택, 아파트로 4,690건(28%)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공장, 작업장이 2,905건(18%), 차량이 2,664건(16%), 점포 1,031건(6%), 음식점 827건(5%) 순이며 전년대비 주택, 아파트 434건(10%), 공장, 작업장 566건(24%), 차량 524건(25%), 점포 95건(10%), 음식점 28건(4%)이 증가하였다.

'91 화재발생 장소별 현황

區分 場所別	發生件數(%)	人命被害 (死亡/負傷)	財産被害 (百萬元)
計	16,487(100)	525/1,256	44,217
住宅·아파트	4,690(28.4)	276/544	4,852
工場·作業場	2,905(17.6)	44/226	20,133
車輛	2,644(16.0)	14/35	3,850
店舖	1,031(6.3)	18/80	4,271
飲食店	827(5.0)	45/98	1,270
事業場	552(3.3)	13/61	972
호텔·旅館	206(1.2)	14/36	174
倉庫	338(2.1)	5/11	1,686
學校	99(0.6)	4/1	162
船舶	75(0.5)	1/4	225
市場	26(0.2)	0/1	1,984
其他	3,094(18.8)	91/159	4,638

최근 5년간의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주택이 11%, 공장, 작업장이 12.8%, 차량이 18%, 점포가 6.8%, 음식점 10%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의 경우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화재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87~'91)

區分	計	住宅	工場	車輛	店舖	飲食店	事業場	其他
'87	10,144	3,133	1,817	1,718	789	579	294	1,814
'88	12,507	3,769	2,145	1,526	887	757	426	2,997
'89	12,704	3,754	2,185	1,800	958	740	445	2,822
'90	14,249	4,256	2,339	2,120	936	799	536	3,263
'91	16,487	4,690	2,905	2,644	1,031	827	552	3,838
年平均	13,218	3,920	2,278	1,962	920	740	451	2,947
增加率(%)	(13.3)	(10)	(12.8)	(18)	(6.8)	(10)	(18)	(23)

3. 발생원인

'91년 화재발생 주요원인을 보면 전기로 인한 화재가 6,160건으로 전체 화재의 37.4%를 차지하였고, 담배 1,745건(10.6%), 방화 1,312건(8%), 불장난 1,181건(7.2%), 담배물 272건(18%), 방화 4건(0.3%), 불티 205(33%)이 증가하고 유류화재만 12건(1.3%)이 감소하였다.

주요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區分 原因別	發生件數 (比率%)	人命被害 (死亡/負傷)(%)	財産被害 (百萬元)(%)
計	16,487(100)	525/1,256	44,217
電氣	6,160(37.4)	95/244(19.0)	19,006(42.9)
담배	1,745(10.6)	34/52(4.8)	4,020(9.1)
放火	1,312(8.0)	108/169(15.5)	2,294(5.2)
불장난	1,181(7.2)	18/18(2.0)	1,228(2.8)
油類	887(5.4)	29/155(10.3)	1,223(2.7)
불티	835(5.1)	7/28(1.9)	2,595(5.9)
爐	514(3.1)	25/67(5.2)	1,197(2.7)
가스	578(3.5)	31/217(13.9)	869(1.9)
아궁이	263(1.6)	16/15(1.7)	272(0.6)
성냥·양초	170(1.0)	21/27(2.7)	203(0.4)
其他	2,842(17.1)	141/264(22.7)	11,310(25.6)

최근 5년간의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전기가 18%, 담배가 11%, 방화가 14%, 불장난 2%, 유류 5%, 난로 3%, 가스 19% 등이며, 불장난이나 난로 등의 화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난방연료의 전환 등에 의한 가스화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월별, 계절별 화재발생 현황

'91년도 월별 화재발생 현황은 1월이 1,705건(10.3%)으로 가장 많으며 12월 1,656건(10%), 11월 1,617건(9.8%), 2월 1,568건(9.5%) 순이며 전년대비 상황은 년중 계속적인 증가추세임에도 12월은 11월의 각종 불조심 행사 등 홍보활동에 힘입어 4%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월별분포는 12, 1, 2월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하절기인 7, 8, 9월의 화재발생율이 가장 적으며, 건조주의보 발령이 비교적 많은 4, 5, 6월의 봄철과 가을철 등의 화재증가율이 전년대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계절별 화재발생 현황은 겨울철(12, 1, 2월) 4,929건으로 전체 화재의 30%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봄철로 4,553건(27.6%), 가을철 4,130건(25.1%), 여름철 2,875건(17.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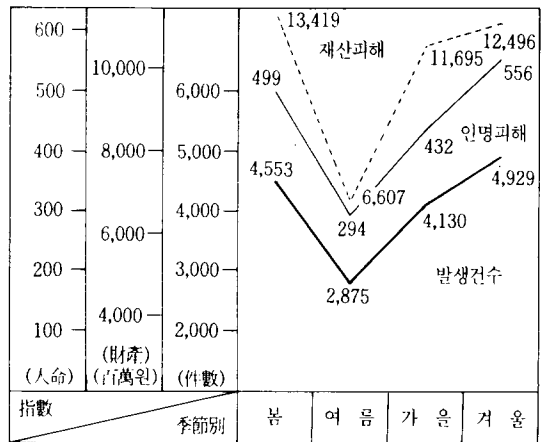
'91年度 月別 火災發生 狀況

區分 月別	發生件數	前年對比 增加率%	人命被害 (名)	前年對比 增加率%	財産被害 (百萬元)	前年對比 增加率%
計	16,487	16	1,781	15	44,217	30
1月	1,705	3	223	33	3,023	18
2月	1,568	22	172	56	3,277	64
3月	1,587	10	171	△5	3,244	△25
4月	1,590	21	182	9	4,141	63
5月	1,376	30	146	11	6,034	156
6月	1,035	26	133	16	2,416	34
7月	871	10	72	△32	1,792	△14
8月	969	21	89	29	2,399	53
9月	1,054	19	75	△22	3,458	121
10月	1,459	18	162	21	3,089	△59
11月	1,617	32	195	103	5,148	89
12月	1,656	△4	161	△9	6,196	101

계절별 재산피해는 봄철이 13,419백만원(30.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겨울철로 12,496백만원(28.3%), 가을철이 11,695백만원(26.4%), 여름철 6,607백만원(26.4%) 순이었다.

특기할 사항은 전년도에 비하여 재산피해가 많은 계절이 겨울철에서 봄철로 바뀌었는데 이는 화재가 잦은 겨울철 불조심합성화 운동의 경각심이 이완되기 쉬운 계절이고, 또한 건조기가 계속되는 날이 많은 계절적인 탓으로 분석된다.

'91년도 계절별 화재발생 현황



5. 요일별·시간별 화재발생 현황

'91년도 요일별 화재발생 현황은 토요일이 2,455건(14.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화요일이 2,416

건(14.7%), 금요일 2,414건(14.6%), 월요일 2,341건(14.2%) 순으로 발생하여 화재발생이 1주일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주로 주말과 주초에 발생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요일별 화재발생 현황

曜日 年度	月	火	水	木	金	土	日
'91	2,341	2,416	2,294	2,243	2,414	2,455	2,324
'90	2,039	2,045	2,023	2,023	2,051	2,054	2,014
増減 (%)	302 (14.8)	371 (18.1)	271 (13.4)	220 (10.9)	363 (17.7)	401 (19.5)	310 (15.4)

시간별 화재발생현황은 주로 사람들이 활동을 정지하고 취침에 이르게 된 후의 00:00~03:00시 사이가 2,622건(15.9%)로 가장 많으며, 낮시간대인 15:00~18:00시 2,461건(14.9%), 12:00~15:00시 2,270건(1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사람들의 활동이 시작된 06:00~09:00시 사이가 1,221건(7.4%)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별 화재발생 현황

時間 年度	00:00	03:00	06:00	09:00	12:00	15:00	18:00	21:00
	03:00	06:00	09:00	12:00	15:00	18:00	21:00	24:00
'91	2,622	1,811	1,221	1,963	2,270	2,461	2,092	2,047
'90	2,229	1,654	1,067	1,584	1,989	2,083	1,809	1,834
増減 (%)	393 (17.6)	157 (9.5)	154 (14.4)	379 (23.9)	281 (14.1)	378 (18.1)	283 (15.6)	213 (11.6)

6. 대형화재

'91년중 대형화재(사망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 3억원 이상)는 총 11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89건(사망 53명, 부상 36명), 재산피해 487,226만원이 발생하였고, '90년도 5건에 비하여 120%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형화재의 일반화재에 대한 비율은 건수에서 0.07%, 인명피해 5%, 재산피해 11%로 나타나 건수에 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1년도 대형화재 발생현황

連番	日時	場 所	原 因	人命被害			財産被害 (萬圓)
				計	死亡	負傷	
計		11件		89	53	36	487,226
1	1.24 06:20	경남 울산시 중구 우정동 725 4(유곡탕)	불 장 난	14	10	4	350
2	1.24 17:50	인천시 북구 심정동 354(홍부농악대연습장)	전 기 합 선	10	1	9	200
3	2.16 03:34	서울 강남구 청담동 54 1(일반주택)	전 기 합 선	6	6	-	650
4	2.18 20:16	서울 구로구 시흥3동 970(알콘특수용접작업장)	유 류	6	5	1	140
5	4.11 16:34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159(신도영 미용실)	신 나 유 증 기 폭 발	17	1	16	915
6	5.1 14:12	충남 천안군 성거읍 문덕리 산 19 1(주)대의	원 인 미 상	-	-	-	241,450
7	5.26 04:40	서울시 도봉구 미아3동 186 32(청하장 여관)	원 인 미 상	8	6	2	420
8	9.13 23:47	경남 울산구 청량면 성남리 940(대영 목공업)	전 기 합 선	-	-	-	89,070
9	10.12 06:45	경남 울산시 남구 삼산동(삼산 현대 APT 101동)	원 인 미 상	8	8	-	3,831
10	10.17 21:50	대구시 서구 비산4동 333(거성관 나이트클럽)	방 화	20	16	4	200
11	12.4 01:43	서울시 중구 남창동 31 2(남대문 시장)	전 기 방 석 과 열	-	-	-	150,000

원인별로는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가 4건(36.4%)으로 1위였고, 장소별로는 공장, 작업장 화재가 3건(27.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형화재 원인별 분석

計	電氣	油類	放火	불장난	原因未詳
11건	4	2	1	1	3
(100%)	(36.4)	(18.2)	(9.1)	(9.1)	(27.3)

대형화재 장소별 분석

計	工場 作業場	住宅 아파트	事業場	市場	旅館	飲食店	沐浴湯
11건	3	2	2	1	1	1	1
(100%)	(27.3)	(18.2)	(18.2)	(9.1)	(9.1)	(9.1)	(9.1)

소방대상물은 '92. 1. 1현재 특수장소가 266,196개로 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고, 위험물 제조소 등 현황은 56,635개소로서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황

計	宿泊 業所	市場 百貨店	病院	公衆場	工場	高層 建物	遊興 飲食店	複合 建物	地下 商街	大量 危險物	其他
4,662	757	475	226	91	1,450	257	663	420	63	107	153

고층건물(11층 이상) 현황

計	11層	12層	13層	14層	15層	16層	17層	18層	19層	20層以上
棟	326	1,584	735	639	4,002	83	79	74	16	192

인구, G.N.P, 건축허가 면적 및 에너지 소비량 등 소방여건은 5년간 평균 14.3%가 증가하고 있고, 5년간 화재발생 증가율은 13.3%로 소방여건의 증가율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7. 소방여건과 화재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율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여건 증가율과 화재발생 증가율('87년 이후 5년간)

